



[산업] 조원태 vs 땅콩연합 한진칼 경영권 분쟁 06



Economy

코스피	2054.89 (-21.88)	코스닥	638.17 (-16.46)
금리 (연평균)	1.19 (+0.06)	환율 (원/달러)	1217.20 (+0.30) (27일)

CB, 잔치는 끝났다 2조 만기 ‘상폐경보’

한줄기 빛... 코로나 치료제 임상3상

코스닥 흑역사

(下) 메자닌 만기폭탄

만기도래 주식사채 2.4조원 전환사채가 80% 이상 달해 기업들 전환가액 낮추기도

코스닥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발행한 전환사채(CB) 등 메자닌(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주가는 도리어 하락하고 있어 원금 상환부담이 커진 탓이다.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면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감사인들도 관련 재무상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식관련 사모채권 규모는 2조4417억원이다. 주로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이 CB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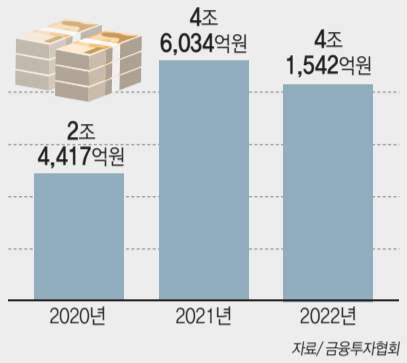
◆주가 하락에 CB 상환 ‘찢찢’

코스닥 기업의 CB 발행은 매년 늘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명분으로 CB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 라임자산운용사와 같은 사모펀드, 코스닥벤처펀드 운용사가 시장에 나오는 중소·벤처기업의 CB를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통상 CB의 만기는 2~3년이다. 때문에 올해를 시작으로 2021년, 2022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시장에 쏟아졌다. 오는 2021년에는 4조6034억원, 2022년에는 4조1542억원의 주식 관련 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CB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주식 관련 사채 만기 도래액



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투자자는 보유 사채를 추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투자금을 현금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 다만 주가가 오를 때 이야기다.

요즘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투자자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유인이 크지 않다.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이자까지 붙여 현금을 상환해야 한다.

실제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4년 CB를 발행해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으로부터 610억원 어치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만기가 도래한 지난해 10월 YG엔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원금과 이자 674억원을 보유 현금으로 상환했다. 이후 경영난에 몰린 YG엔터는 계열사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환급할 현금이 없는 기업들은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낮추기도 한다.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라는 오명으로 주가가 급락한 에스모는 지난 10월 전환가액을 6300원에서 2325원으로 대폭 낮췄다. 지난 24일에는 전환가액이 1238원까지 낮아졌다. (5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코로나 확진자 1800명 육박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만에 505명 급증했다. 총 확진자는 1766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오후 4시 집계보다 334명 늘었다고 밝혔다. 오후 들어서는 17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제까지 최고 증가폭이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이날 대구 지역에 422명이 집중됐다. 대구 지역 누적 환자는 1132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1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대기 중이던 74세 남성이 숨지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방역당국은 맥박, 연령, 기저질환 여부 등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환자 사례별 중증도와 고위험 요인을 확인해 우선 입원조치하겠다”며 “시도 단위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의료진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대구 신천지 교인과 이외 지역 신도, 접촉자들의 검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통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내일 이면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 결과는 반영될 것이며 양성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코로나19 관련기사> 2~5, L3, L6~L7면

美 길리어드, 한국 등 대상 에볼라 치료 물질로 임상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이 시작된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사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 후보물질 ‘렘데시비르’에 대한 두건의 임상 3상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3일 부터 1차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그 외 코로나19 진단 사례가 많은 국가의 의료기관에서 약 1000명의 환자를 우선 모집을 시작한다.

길리어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서를 제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황이 위중한 만큼 통상 30일 가량 걸리는 IND 승인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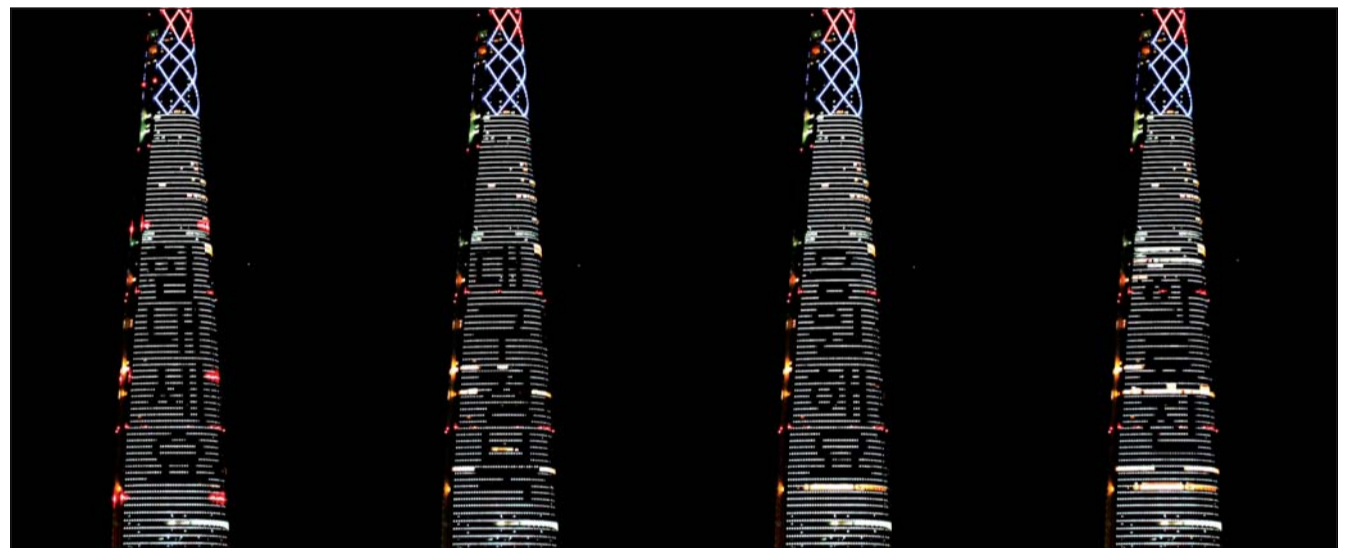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중이던 후보물질로, 임상 2상 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렘데시비르에 대해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가장 믿을 만한 치료제 후보”라고 밝힌 바 있다.

길리어드는 이번 임상3상에서 렘데시비르의 각기 다른 두 가지 투여기간을 평가한다. 첫 번째 임상시험에서는

임상 양상이 중증인 코로나19 환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 5일 또는 10일 투여군으로 무작위 배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임상시험에서는 중증증의 코로나19 환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 5일 투여군, 10일 투여군, 또는 표준 치료제 단독투여군으로 무작위 배정할 예정이다. 두 임상시험의 1차 평가변수는 임상적 호전으로 동일하다.

길리어드는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서 2건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증 연구소(NIAID)를 통해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임상연구 결과는 4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세경기자 seilee@



힘내세요 대구·경북, 응원해요 의료진

롯데월드타워가 27일부터 건물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오후 7~11시 매시 정각과 30분에 10분간 ‘힘내세요 대구·경북’, ‘힘내자! 대한민국’, ‘응원해요 의료진!’ 등 응원 메시지가 타워 외벽에 연출된다.

/연합뉴스

‘신중론’ 택한 韓銀, 기준금리 1.25% 동결

‘코로나19’ 충격 좀 더 지켜보기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 증액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일단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3년 1개월 만에 내렸고, 같은 해 10월 연 1.25%로 한 차례 더 내린 후 4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면서 금리인하론이 급부상했다. 그럼에도 금통위가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이 섰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인지 여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국내수요와 생산활동 위축은 경제적으로 요인이라고 보기는 감염요인에 따른 불안심리의 확산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금리조정보다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저금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

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통화정책 대신 피해기업을 타깃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신용정책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

이번 금리동결은 금융안정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 효과가 나려면 어느 정도 시차가 있어야 한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안정이라는 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하나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대응 여력에 대해 “성장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며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금리외 수단도 어느 정도 갖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